

정성으로 가꾸는 공동체살림

서울 아현동 놀이방에서
아이들과 한바탕 웃음판을
벌이는 부스리기선교회 회
원들은 '함께 나누는 사회'
가 빨리 오기를 숙원한다.
<곽윤섭 기자>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⑧

부스리기선교회

86년 12월 '단돈 1천원'의 부스리기금으로 시작해 4년만에 매월 5백여명의 회원이 내는 4백여만원으로 22개 탁아소와 공부방을 돕는 단체로 자란 '부스리기선교회'는 대도시지역에서의 새로운 지역사회운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85년 서울의 난지도부설 배움선교회, 새봉교회 새봉유아원, 백마교회 백마유아원 등 경인지역 5개 작은교회부설 빈민공단지역 탁아소교사들이 신생탁아소를 힘들게 꾸려나가느라 부족한 돈을 모금하면서 부스리기선교회는 시작됐다.

“조그마하지만 소중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가난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누는 뜻에서 시작했지요.” 총무 강명순씨의 설명이다.

매월 1만원씩 꼬박꼬박 부쳐주는 수백명의 후원회원, 자신도 빈민촌에 살면서 한복 삶바느질을 하면서 한복 자투리천을 잔뜩 가져다 줘 탁아소 애들의 좋은 장난감을 마련해주는 아주머니,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탁아소 어린이의 글을 읽고 멀리 강원도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저씨 등 부스리기선교회를 돕는 손길은 자그마하지만 무척 따뜻하다.

“참 신기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 보다는 여자가

명중 90%이상이 여잡니다” 간사 이지영씨는 말한다.

서울 남창동 일신교회안 1평 남짓의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간사2명과 총무는 후원회원에게 탁아소의 실정을 알리는 소식지를 파내고 틈만 나면 탁아소를 찾아다니면서 후원회원과 탁아소를 연결하는 일로 늘 바쁘다.

지난해말 통과된 '영유아보육법'으로 사실상 부스리기선교회가 후원하는 한울림탁아소·돌샘어린이집 등 22개 작은 탁아소들은 시설기준 미비로 문을 닫게 될 형편에 처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이제 국가가 탁아소를 지원하게 됐으니 부스리기선교회 같은 단체는 필요없게 된 것이 아니냐'고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스리기선교회의 올해 사업은 후원회원을 더 늘려 이들 22개 탁아소들이 빨리 시설기준을 갖춰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에 부스리기선교회는 2월7일 결성될 '저소득층의 탁아문제 공동대처를 위한 기독교준비위원회'결성에도 참여했다.

“교회 하나하나 탁아소 하나씩을 운영해 받쳐줄 가난한 어



대도시 소외지대 22개 탁아소 지원

4년전 1천원으로 시작...현재 회원 5백여명

하는 것"이 이들의 궁극목표다. 이들은 현금외에도 연료, 장난감, 동화책 등을 보내주고 겨울에는 보일러시설, 부엌, 화장실시설까지 돌보아준다. 지난해 한창 전세금이 뛰어 탁아소들이 힘들었을 때는 특별 전세대책금을 몇백만원씩 모으기도 했다. 한 곳에 후원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교통정리하는 것도 큰 일이다.

87년부터 매달 2만원씩 후원하고 있는 주부 이정아(41)씨는 “직접 탁아소를 차려다트다 교

어린이를 위해 동시대인으로서 뭔가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다”고 말한다.

후원회원들이 시간을 쪼개어 직접 탁아소를 방문해 어린이들의 간식을 만들어주는 일도 흔한 일이다.

외국에선 중산층들이 모은 기금이 빈민·노동자·농민사업에 쓰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중상층들이 일회적으로 한두 곳에 집중적으로 성금을 내긴해도 빈

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기금을 마련한 경우는 드물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정말 많아” “가

난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차단되는 어린이들을 도와야 할텐데”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서로 마음의 문을 꽂꽂 닫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스리기선교회가 4년만에 본궤도에 올린 '부스리기선교회'를 통한 공동체살림운동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지역운동의 모습을 심고 있다.

22개 탁아소외에도 후원을 기다리는 탁아소 6개가 줄 서있듯 후원회원이 되려고 줄 서 기다리는 그런 사회를 이들은 기대